

‘전남 관광객 5000만시대’ 인프라 확충 탄력

흑산공항 기본계획 고시 ... 1872억 들여 2021년 개항

여수경도 카지노리조트 추진... 2곳 허용 전국 34곳 경합

민선 6기 전남도가 내건 ‘5000만명 관광객 시대’에 걸맞은 흑산공항, 여수경도 복합리조트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들 시설은 13억 중국인 관광객 등 대규모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전남 관광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전망이다.

1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2021년 개항을 목표로 신안군 흑산도에 ‘흑산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공항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호남고속철도와 여객선으로 6시간 이상 걸리던 흑산도 나들이가 1시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등을 벌이고 있다.

오는 2020년 공사가 완료되는 흑산공항은 1872억원이 투입되며, 흑산도 예리 일대 68만4000㎡ 부지에 50인승 중·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길이 1200m, 폭 30m의 활주로와 항행 안전시설 등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예산 협의

등이 남아 있는 상태로, 기본계획 고시까지는 사업 내용이 유동적이다”고 말했다.

여수 경도에는 복합카지노리조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경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30일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2곳과 외국계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1곳 등 모두 3개의 컨소시엄이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복합카지노리조트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제안서(RFO)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3곳의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낼 만큼 여수 경도가 복합카지노리조트 부지로 손색이 없다는 의미다.

여수 경도가 사업자로 선정되면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오는 2019년 말까지 10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풀놀이 시설, 복합쇼핑몰, 요트마리나 등을 갖춘 복합카지노리조트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또 국제 회의시설을 비롯해 승마체험장, 씨푸드 타운, 공연장, 체험학습장 등도 들어선다. 현재 여수 경도에는 전남개발공사 가 골프장 27홀과 콘도 100실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가을엔 ‘유커’ 다시 늘 것”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주석 도서 기증식’을 마친 후 특강하고 있다. 추 대사는 이날 “메르스 때문에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가을이면 관광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복합카지노리조트 선정 업체는 전국적으로 34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서 검토와 평가를 거쳐 8월 말까지 2개 안팎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도 사업소는 특히 여수 경도가 인천 영종도와 부산 북항과 최종까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사업대상 지역 1곳에 복수의 제안서 제출이 가능해 지난 6월 5일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여수 경도복합리조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도사업소 채창선 소장은 “여수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경도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골프장과 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춘 상태”라며 “다른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확신을 확신하지 않기

신형철 칼럼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가 이집트와의 전쟁에 승리했을 때, 승전국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는 패전국 이집트의 왕 프삼메니토스에게 모욕을 주려고 했다. 그래서 그를 길거리에 세워서, 그의 말이 허너로 전락해 물동이를 지고 우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했다. 이 광경을 보고 모든 이집트인들이 슬퍼했으나 정작 왕은 평판 내려다볼 뿐이었다. 곧이어 아들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왕은 역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포로 행렬 속을 걸어가는 늑고 초라한 한 남자가 자기의 오래된 시종임을 알아본 순간, 왕은 주먹으로 머리를 치며 극도의 슬픔을 표현했다.

이것은 그리스 시대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원전 5세기에 쓴 ‘역사’의 3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나는 이것을 독일의 문예비평가 발터 벤야민의 글 ‘이야기꾼’(한국어판 ‘발터 벤야민’ 9을 통해 알게 됐다. 이야기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나는 이 글을 내보이고는 한다. 왕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의 에세이스트 몽테뉴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한다. “왕은 이 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조금만 그 양이 늘어도 맘이 무너질 판이었다.” 딸과 아들까지 잘 놀러 왔었다는 데 시종을 보자 그 슬픔이 흘러넘쳤다는 것.

벤야민은 이 해석이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모양인지,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놓고 토론을 했다. (이것이 바로 바랍직한 문학 수업의 모델이다.) 벤야민의 친구 프란츠 헤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 왕에 속한 가족들의 운명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은 그 자신의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벤야민이 친구의 말을 풀어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가 어떤 뜻으로 한 말인지는 알겠다. 패전국의 왕과 그 자녀들

이 고통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 가족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늑은 시종은 무슨 죄란 말인가. 비로소 왕은 죄책감에 몸부림 쳤다는 것.

한편 벤야민의 연인 아사 라치스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한다. “실제의 삶에서는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는 것이 무대 위에서는 감동시키는 것이 많이 있다. 이 시종은 그 왕에게 단지 그러한 배우였을 뿐이다.” 알송달송한 말 같지만 그럴듯한 데가 있다. 우리는 정작 내 가족들의 고통은 무심하게 보아 넘기면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드러나나 영화에서 볼 때는 평평 울기도 하질 않는가.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가족에 비해 시종은 확실하 왕에게서 ‘떨어져’ 있는 존재다. 그 ‘거리’ 때문에 왕에게 시종은 일종의 극(劇)화된 비참으로 다가온 것일 수도 있었겠다.

이제 벤야민 자신의 해석을 들어볼 차례다. “거대한 고통은 정체되어 있다가 이완의 순간에 터져 나오는 법이다. 이 시종을 본 순간이 바로 그 이완의 순간이었다.” 예컨대 별안간 부모의 초상을 치르려 된 사람이 미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는, 현관에 놓인 부모의 낡고 오래된 신발 한 짝을 보고 비로소 주저앉아 통곡하게 되는 상황 같은 것일까. 그럴 수도 있으리라. 벤야민은 자신의 해석까지 소개하고 나서 덧붙이기를, 헤로도토스가 왕의 심경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으므로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이라 했다.

이제 반전이 있다. 나는 벤야민의 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확인해 보고 놀랐다. 이야기 속 노인인 ‘시종’이 아니라 왕의 ‘친구’였다. 왕 자신의 해명도 이미 이야기 안에 있었다. “제 집안의 불행은 울고불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의 고통은 울어줄 만하옵니다.”(천병희 옮김) 이게 정답이라는 말은 아니다. 벤야민이 소개한 해석들이 내게는 여전히 더 흥미롭다. 그러나 직접 펼쳐 읽지 않았다면 원본은 다르다는 사실을 내내 몰랐으리라. 나는 다시 다짐한다. ‘무엇이건 네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마라. 아니, 눈으로 확인한 뒤에도, 당분간은 믿지 마라.’

(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시·도지사 취임 2년 첫 행보

윤장현 시장, 남광주 시장 등 찾아 근로자 격려

윤장현 광주시장은 민선6기 취임 2주년 첫날을 경제 현장서 시민들과 함께 시작했다.

윤 시장은 1일 광주U대회 개최 준비 마지막 점검의 숨가쁜 일정 속에서도 남광주시장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광주사업장 등 경제 현장을 찾아 상인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윤 시장은 이날 새벽 조옥자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장 안내로 수산물, 과일, 육류코너 등의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이용

해 생활용품 등을 구입했다. 또한 부부식당 국밥집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회원, 간부들과 조찬을 했다.

또한 오후에는 광주 수출 주력산업인 세타기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광주사업장을 방문해 대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시장은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광주사업장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이어 세타기 제조공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이낙연 지사, 정례조회서 “취약계층 삶 챙겨라”

이낙연 전남지사도 취임 2주년 첫날인 1일 정례조회를 갖고 “공무원들은 본능적으로 ‘연민’(憐憫)의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7월 조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담회에서 “세상에 그 자리에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족이 변할 수도 있고, 공멸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굶직한 일을 하다 보면 취약계층 챙기는 일을

빠뜨릴 수 있다”며 “봉사하는 ‘연민’을 공직자 제1의 마음가짐으로 삼아 취약계층의 삶을 도와줄 정책을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조회에선 30년만에 고흥 연흥도에 울려 퍼진 아기 울음소리의 주인공 공 강태원(3)군과 여수엑스포힐스테이트부녀회, 고흥 연흥도 주민 대표 등이 숲 속의 전남 만들기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시책을 추진해 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감사 꽃다발을 전달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민단체 “광주시 문화정책실 축소 안된다” 반발

광주 시민단체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맞고 있는 문화관광정책실 축소를 전제로 하는 광주시 조직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바로세우기 위한 시민모임,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등은 1일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의 문화전당 조직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축소방침에 대

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광주시는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정책실의 위상을 격하하고 조직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광주시의 조례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기존 직제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메르스 확진자 4일째 안나와 ... 발병 없으면 25일 종식 선언

메르스 추가 환자가 나올 연속 발생하지 않는 등 뚜렷한 징후를 보이며 신규 확진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지난날 28일 이후 나올

째 메르스 확진자 수는 182명에 머무르고 있다.

보건당국 안팎에서는 종식 선언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최대 잠복기의 두배인 4주로 결정할 경우 현재대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는 25일, 종식 선언이 가능할 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UNIVERSIADE GWANGJU 2015 정읍시민들이 함께 응원합니다

제12회 단풍이인 씨없는 수박 품평회

2015년 7월 10일(금) ~ 7월 11일(토) 2일간
(개회식 2015년 7월 10일(금) 오후 2시)
정읍실내체육관

주최_ 정읍시
주관_ 정읍시수박연구회
인내_ 정읍시농업기술센터
☎ 063 539-6341~3

일정	시간	주요내용
7. 10.(금)	13:40 ~ 14:00	· 식전행사 -개막식 축하공연 (정읍시합창단)
	14:00 ~ 15:00	· 개회식 -내빈소개 -수박연구회장 인사 -축사(시장, 국회의원, 의장) -품평회 시상(8점) -전시관 관람
	15:00 ~ 17:00	· 수박품평회 축하공연 -밸리댄스, 저글링, 난타공연 ·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이벤트 -수박 빨리 먹기, 닥트 게임 등 -행운권 추첨 · 씨 없는 수박 판매 행사 및 시식 ·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 · 건강 클리닉
	18:00	· 폐관
7. 11.(토)	10:00 ~ 15:00	· 전시관 개관 ·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이벤트 -수박 빨리 먹기, 닥트 게임 등 -정읍사랑 OX 퀴즈 -행운권 추첨 · 씨 없는 수박 판매행사 · 정읍시 수박연구회 화합의 장 -노래자랑, 레크레이션 등
	17:00	· 폐관